

국가 석유화학산업의 메카 산업도시 대산

최충익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반현황

서산시에 속해 있는 대산읍은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기업들이 입지해 있는 산업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북서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석유화학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동쪽에는 대호지만의 방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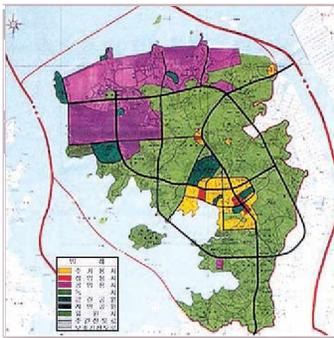


대산을 위치도

건설로 비옥한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어업 및 염전업이 발달하였으나 최근 폐염전이 늘어나면서 토지이용이 변화하고 있다.

지리적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망일산을 제외한 산들이 대부분 해발 170m 이하로 저산성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얇은 산 중에 조금 높은 산이 있어서 大山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대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중국 황해연안 관문항인 대련항과 491km, 청도항과 855km, 연운항과 689km 정도로 인접하여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시대 국제교역의 거점지역으로서 큰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특성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산업도시 대산은 공간적으로 보면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번째는 공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북서쪽의 석유화학산업단지로 실제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롯데대산유화, 엘지화학, 씨텍 등이 입지하여 거대한 단지를 이루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은 연간 14조원에 달하며 납부하는 국세가 총 2조 9천억원, 지방세가 360억에 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농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동쪽의 광대한 농경지를 들 수 있다. 대산읍의 경지는 밭보다 논 면적이 약 3배가량 많은 곳으로 이는 대호지만의 7,600ha에 달하는 간척지 조성사업을 통해 논 면적이 증가함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최근의 추세는 점차 농가 및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3차 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도시8- 서산시 대산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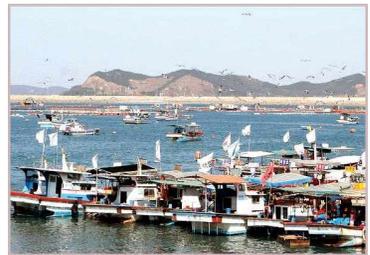
세 번째는 어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로림만 부근의 대규모 염전을 늘 수 있다. 염전 및 수산물 판매는 오래전부터 바다를 접한 대산읍의 생계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염전의 경우도 다른 토지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전통산업의 쇠퇴는 대산의 새로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산읍은 공업, 농업, 어업이 한 도시에서 공존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산업도시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농촌, 어촌, 산업단지가 도시의 다양성(Diversity)을 이루어 다른 도시가 가진 수 없는 매력과 활력을 지닌 잠재력이 될 수 있다.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66%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산업도시로서 대산은 여타 읍이나 지방도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산은 대규모 기업체가 입지해 있어 수도권 유입인구가 여타 도시보다 많은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소비패턴이나 생활패턴 역시 농촌, 어촌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오히려 도회지적인 색채가 강한 측면이 있다. 도시라는 공간을 채우고 활력을 주는 주인은 바로 사람이기에 도시의 성격도 그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석유화학관련 대기업 종사자가 7,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가족 등 유발인구까지 감안하면 대산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대산읍은 농촌과 어촌의 자연환경을 가



석유화학단지



선상횃집



염전



대호방조제



삼길산 신책로



웅도

지고 있지만 도시적 생활환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대산읍 도서관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이용자 대부분이 석유화학 관련 종사자 및 가족이며 대출 도서가 전문적인 기술도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용객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교육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원 활용과 발전방향

대산읍의 자원은 크게 자연자원, 문화자원, 산업자원, 인적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자연자원에 대해 살펴보면, 망일사, 삼길산, 웅도리 등을 들 수 있으며 대호방조제 좌우의 경치 및 삼길포에서 인근의 도비도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경관 역시 중요한 자연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호방조제는 총 길이가 7.8km에 이르며 주변 바다에 떠있는 섬들의 풍경이 아름답고 해안 드라이브코스로 유명하다. 특히 방조제 안쪽에는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겨울철에는 고니, 가창오리, 청둥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드는 곳이다.

삼길산의 경우 임도를 따라 보이는 산업단지와 해변의 경관이 출중하며 주변 삼길포 바닷물빛 역시 장관을 이루어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다. 웅도리는 서산의 대표적인 섬으로 대산읍에서는

충남의 도시8- 서산시 대산읍

유일하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이다. 대산읍과 웅도가 콘크리트 포장길로 연결되어 있으나, 하루 2번 썰물 때마다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섬이다.

둘째, 문화자원은 민속자원과 역사유적자원을 들 수 있다. 대산읍의 대표적인 민속자원으로는 대산 황금산 당제, 운산 횃개 벗가리제, 기은리 장승제가 있다. 역사유적은 선사시대 유적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선사유적으로서 운산리의 토끼섬패총이라 불리는 청동기시대 유적은 적색의 연질토기편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이지역 첨사들의 선정 기념비인 화곡리 비석군, 첨사 김취명의 공적기념비인 김취명 영세 불망비, 옥녀봉 아래 산사면에 위치한 김홍욱 신도비 및 묘역은 대산읍의 주요한 유교유적 역사자원이다.

셋째, 산업자원은 대산읍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자원으로 주로 대죽리와 독곶리에 분포한다. 매년 14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반산업이 있다는 것은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산업과 관광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산업과 관광의 결합으로 산업의 우수성과 안전성, 지역발전 효과를 홍보하고 열악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단순한 산업홍보의 장이 아닌 교육·문화·자연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산업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망일사



삼성토탈 홍보관

